

ECDO 논문 3: 현존 서방 지배 세력이 임박한 지질 대재앙에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

준호

2025년 6월 출간

웹사이트 (여기에서 논문 다운로드): sovrynn.github.io

ECDO 연구 저장소: github.com/sovrynn/ecdo

junhobtc@proton.me

Abstract

2024년 5월, “The Ethical Skepti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익명의 온라인 저자는 Exothermic Core-Mantle Decoupling Dzhamibekov Oscillation(ECDO)이라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17, 18]. 이 이론은 지구가 과거에 급작스럽고 파괴적인 자전축 이동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자전 관성에 따라 바다가 대륙을 덮는 대규모 전 지구적 홍수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질 물리학적 과정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유사한 축 전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격변적 홍수와 멸망 예측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ECDO 이론은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다학제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독특한 설득력을 가진다.

본 논문은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세 번째 연구[8, 9]로, 이 이론의 오늘날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 내부고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방 열강은 지구 물리적 대재앙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 사건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이 사건에 대비해 건설된 서방의 광범위한 지하 및 해저 기지에 대한 증거.
- 이러한 기지 건설을 위해 서방 통화 구조에서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

이 논문은 서방 지배 세력이 임박했다고 믿는 지구 물리적 대재앙에 대비해 수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준비 과정을 문서화한 것이다.

1. 프리메이슨과 ”앵글로-색슨 미션”

2010년 1월, 내부고발자 증언을 수집하는 대안 언론 및 저널리즘 단체인 프로젝트 카멜롯은 [15, 32] 2005년 6월 런던 시티에서 열린 시니어 프리메이슨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내부자를 인터뷰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다가오는 ”지구 물리적 사건”, 즉 전 지구적 자연 재해를 배경으로 한 군사 및 정치 계획이었다.

이 내부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25~30명은 ”...모두 영국인이었고, 그중 일부는 영국 국민이라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귀족도 다소 있었고, 몇몇은 상당히 귀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 회의에서 내가 확인한 한 명은 고위 정치인이었고, 두 명은 경찰 고위 인사, 한 명은 군인 출신이었다. 둘 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정부를 자문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15]. 내부자는 자신이 회의에 참석한 경위를 이렇게 밝힌다: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저는 평상시의 3개월마다 있는 정상적인 회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가 기대했던 회의가 아니었죠. 저를 초대한 이유는, 제가 가진 지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들처럼 저 역시 그 무리 중 한 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5].

회의 (2005년에 진행됨)에서 논의된 사건의 기본 일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영국 프리메이슨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조용히 핵폭탄을 투하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중 - 1992년 런던 얼스 코트에서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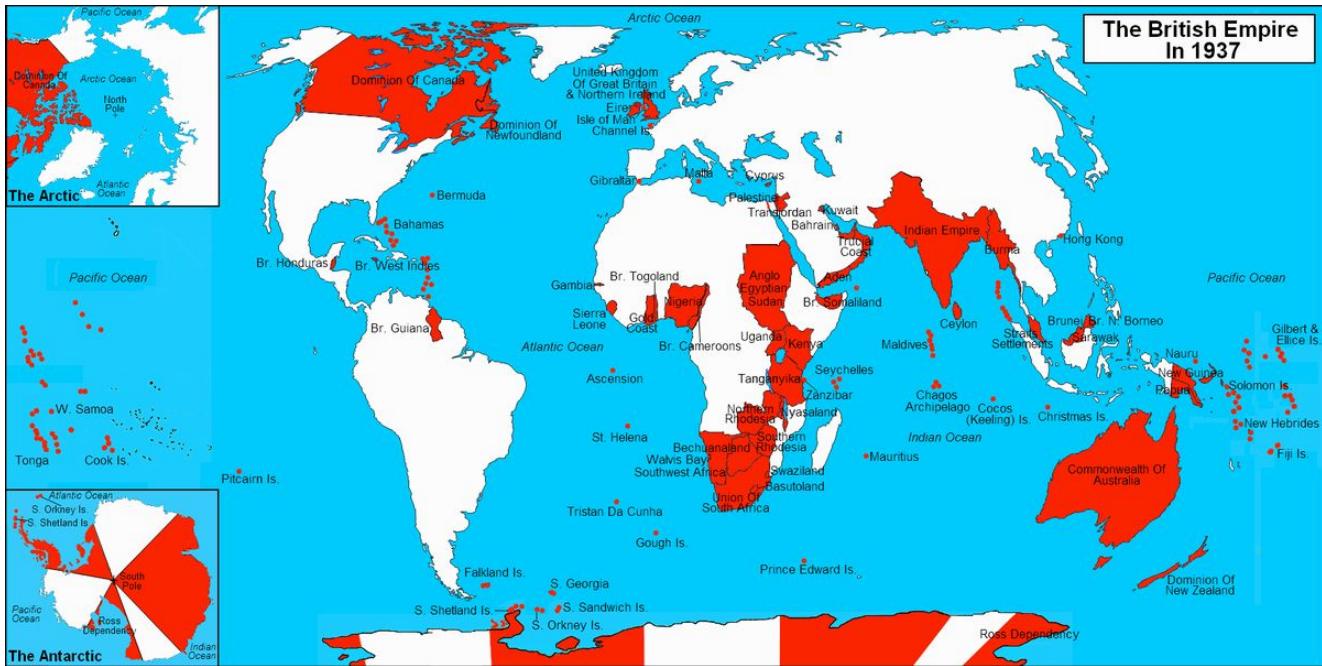


Figure 2. 1937년 영국 제국, 앵글로색슨의 위력이 드러나는 위풍당당한 모습 [11].

1. 이란이나 중국을 전술 핵무기 사용으로 유도하여 제한적 핵교환을 일으키고, 그 후 휴전 협정을 성사시키기.
2. 중국에 생물학 무기를 투입하기. 보도에 따르면 “70년대 이래로” 주요 목표는 중국.
3. 그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과 혼란을 이용해 전제주의 군사 정부를 출범시키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예상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지질학적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내부 고발자는 이 지질학적 사건 동안 ”지구의 지각이 약 30도, 약 1700에서 2000마일 정도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것이며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고 믿는다 [15].

이 모든 비밀스러운 계획의 이유는 물론 권력이다. 내부 고발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시점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핵전쟁과 생물학전쟁을 겪었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지구의 인구는 극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지질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 그 당시 남아 있는 인구도 아마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누가 살아남는지가 세계와 남아있는 인류를 다음 시대로 이끌게 된다. 즉, 우리는 대격변 이후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누가 통제권을쥘 것인가? 모든 것이 그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일이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절박하다...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구조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올 일에도 견딜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다음 날 두 발로 착지할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하며 이전에 누렸던 권력을 계속 가질 수 있다” [15]. 인터뷰 중 이 계획의 이름인 ”앵글로색슨 미션”도 언급된다: [인터뷰어]: ”... 이것을 ’앵글로색슨 미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인을 말살하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격변 이후 모든 것이 재건될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새로운 지구를 재건하고 상속받는 위치에 앵글로색슨이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내부 고발자]: ”그게 맞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지만, 당신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0세기, 그리고 그 이전 19세기, 18세기까지 이 세계의 역사는 주로 서쪽과 지구 북부 지역에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15].

예상된 지질학적 사건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 내부 고발자는 자신의 추측을 제시한다: ”...느낌에, 그리고 이것은 매우 직관적인 것이지만, 그들이 이제는 일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나는 그들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좋은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것은 이것이 내 생애에, 예를 들어 20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약 11,500년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그리고 약 11,500년 주기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지질학적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기에 진입했다.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된 것이다...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일어난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일 중 하나다 – 만약 그들이 모른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이 일에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15].

이것은 우리가 매우 감사해야 할 강력한 증언이다. 인터뷰에서 저자는 또 1차, 2차 세계대전이 조작된 전쟁이었다고 믿으며, 앵글로색슨 미션은 거의 확실히 수많은 세대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논한다. 인터뷰가 있었던 2010년 이후로 이제 15년이 지났다. 내부 고발자가 예상한 지질학적 사건의 20년 타임라인 예측이 끝나기까지 5년이 남았다.

1.1. 대격변에 대한 드루이드식 서구 밀교 지식

서구에서 반복되는 대격변에 대한 지식은 매우 철저히 보존되어 있다. 이는 프리메이슨뿐만 아니라 드루이드에게도 해당된다. 드루이드는 최소 2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켈트 문화로 문헌에 남아 있다 [35]. 이들은 지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대격변에 대한 지식을 전승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드루이드는 벤 맥브래디로 여겨진다. 1992년 다큐멘터리 “마지막 드루이드”에서 그는 드루이드의 지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전통상 마지막 구성원일 수 있는 이 단체는,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마지막 큰 대격변이나 재난 이후에 생겨났다. 이제 이처럼 엄청나고 무서운 전기 폭풍, 혜성 꼬리에 휘말리거나 유성우에 맞은 충격으로 우리가 아는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곤 했다... 모든 지식이 이 단체의 영역 내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특히 천문학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다. 이는 매우 심각한 재해를 너무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으면 이러한 재해가 일어날 만한 조건을 예측할 수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아일랜드의 거대 석조 유적을 보면, 통로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 사실은 매우 원시적인 방공호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구조물들은 어떤 해일 수준보다 높게 위치해 있고, 유성우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4, 31].

2. 현대 서구의 대재앙 대비 증거

지배적인 서구 권력이 전 지구적 지질학적 대재앙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서구 국가들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지하 심층 기지 네트워크의 증거가 공개 영역에 존재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핵전쟁 시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분명히 쓰이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로부터도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Project Camelot의 영국 고위 프리메이슨의 증언에 따르면 [15, 32],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계획된 것들로 보인다. 또한, 이런 기지들을 건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는 지난 18년간 미국 정부에서 사라진 수십조 달러의 금액(다음 절에서 다룸)과도 일치한다 [10, 20, 33]. 멸종 수준의 사건에 대비한 또 다른 예시로는 다양한 종자·지식 저장 프로젝트 등이 있다.

2.1. 미국의 지하 및 해저 기지

내가 찾은 지하 기지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공개 조사는 여러 권의 심층 지하 기지 관련 저서를 출간한 미국의 독립 연구자 리차드 사우더(Richard Sauder)로부터 나온 것이다 [16]. 사우더의 연구는 정부 문서·계획 아카이빙, 과거 및 현재 뉴스와 기술 탐색, 정보원 양성, 내부 고발자 주장 정리를 포함한다. 사우더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미국 영토 내외에는 최소 3마일 깊이까지 도달하고, 지하 진공 고속 자기부상열차로 연결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및 해저 기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Figure 4). 이러한 기지들은 미국 회사의 소유주들과 동일한 세력에 의해 운영되는 ”고위 금융, 국제적·기관 간, 자금 세탁용 셀 게임”을 통해 은밀히 자금이 지원된다 [16]. 이 기지들의 범위에 대한 추가 조사는 (다음 절에 다룸) 캐서린 오스틴 피츠(Catherine Austin Fitts)와 그녀의 연구 협력자 중 한 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미국 내 지하 및 해저 기지 수를 170개로 추정하였다 [21, 6].

다음은 일부 기지의 규모를 자세히 설명하는 Sauder의 소식통의 증언 일부입니다:

1. 캠프 데이비드, 메릴랜드: ”저의 소식통은 캠프 데이비드의 지하 부분이 매우 방대하고 정교하며, 비밀 터널의 길이가 너무 많아서 어떤 한 사람이 시설의 지도를 머릿속에 완전히 그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6].
2. 백악관, 워싱턴 DC: ”저의 가까운 친구 한 명은 1960년대 린든 B. 존슨 행정부 시절 이 시설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백악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아래로 내려갔고, 엘리베이터가 17층 정도 내려간 것 같다고 믿습니다. 문이 지하에서 열리자 그녀는 아주 멀리까지 사라지는 듯한 복도를 따라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복도에서 다른 문이나 통로도 이어졌습니다” [16]. 그럼 3에 나타남.
3. 포트 미드, 메릴랜드 - 1970년대 우연히 ”지하실”에 들어갔던 소식통의 증언: ”문을 열었더니



Figure 3. 백악관과 펜타곤 아래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심층 지하 터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사진: [13]).

American Underground and Undersea Bases (Partial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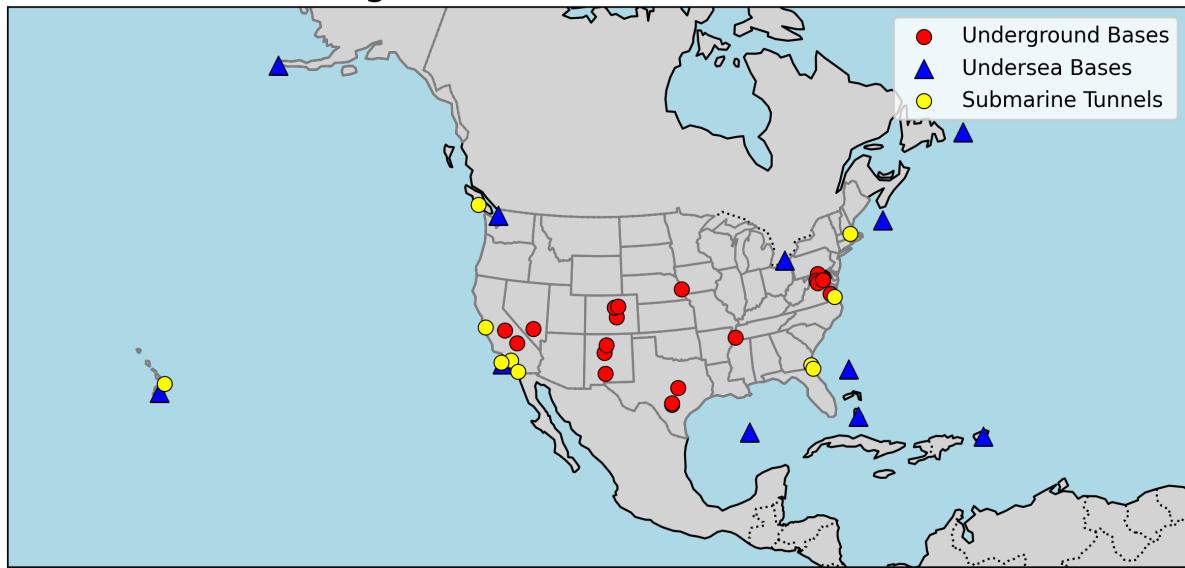


Figure 4. Sauder의 연구가 지하 및 해저 기지가 확실히 존재하는 정확한 위치와, 내륙으로 이어지는 해저 잠수함 터널을 보여주는지도입니다. Sauder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16].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난간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몇 층이었는지는 세지 않았고, 약 15~20층쯤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층 내려가서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좌우를 살펴보니, 양 방향으로 멀리까지 이어진 터널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건물과 주차장이 차지하는 지상 면적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벽을 따라 30~40피트 간격으로 문도 있었습니다... 몇 층 더 내려가 보기로 해서 한 층 더 내려갔더니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한 층 더 내려가서 들여다봤더니 처음 두 층과 똑같았습니다" [16].

Sauder는 또한 시속 2,000마일에 도달하는 지하 자기부상 열차, 해저 아래에 건설된 기지들(그림 5), 그리고 내륙으로 연결되는 수중 잠수함 터널에 관한 증언들도 받았다. 멕시코만의 한 수중 기지에 관한 증언 중 하나에 대해 Saud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Underwater and Underground Bases』가 출판된 후 약 반년쯤 지나 한 남자가 나에게 연락해 와, 특히 한 수중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멕시코만의 해저 아래에 있으며, Parsons가 시공업체였다고 명시했다. 그는 Parsons가 해저 2,800피트 아래에서 작업할 특수 장비를 구입했다고도 말했다... 이 장비는 설치되는 곳에 실제 살아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전제할 만큼 독특하다" [16].

If 실제로 170개 이상의 지하 및 해저 기지가 대륙 횡단 비밀 네트워크로 존재하며, 이들이 우리 밸 아래 수마일 깊이까지 뚫려 있고, 극초음속 전공관 자기부상열차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노동의 결실로 자금이 지



Figure 5. 월터 코르슈너(Walter Koerschner)가 그린 해저 기지의 일러스트. 그는 1960년대 미 해군 차이나 레이크(캘리포니아 무기 센터) Rock-Site 해저 기지 팀의 일러스트레이터였다. Sauder의 소스 중 하나는 차이나 레이크에 1마일 깊이의 지하 기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16, 3].

원되고 있다면, 오늘날 인류 대중은 자기들 밸 아래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자기들 앞에 놓인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종말적이고도 행복한 무지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공허하고도 조직된 발언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2.2. 추가 병커 및 대재앙 대비 증거

미국의 지하 왕실 기지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 준비에 대한 수많은 단서가 존재한다. 노르웨이,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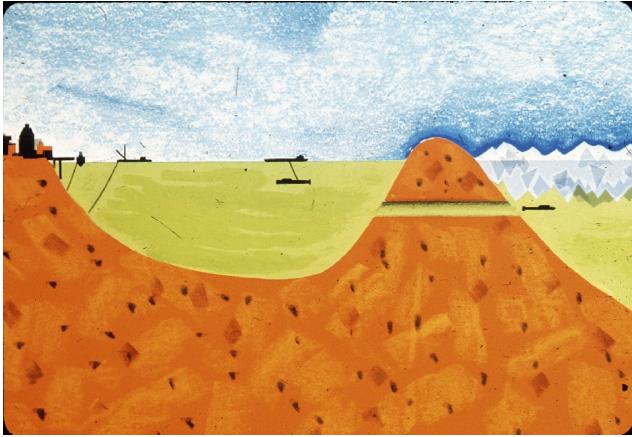


Figure 6. 월터 코르슈너(Walter Koerschner)가 그린 수중 잠수함 터널의 일러스트 [16, 3].

스웨덴, 핀란드가 좋은 예이다:

1. Project Camelot은 노르웨이 정치인의 관련 증언을 공유했다 [12, 24]. 그의 신원은 확인되었으나 비공개로 유지되었다. 그는 노르웨이에 18개의 대규모 지하 기지가 있으며, 노르웨이(이스라엘 및 "많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가 일종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이러한 기지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ichard Sauder 또한 노르웨이에서 거대한 산을 파내 만든 대형 지하기지를 실제로 다녀온 한 남성의 증언을 받았다 [16].
2.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고지대에 건설된 수많은 핵 병커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림 7). 이들 병커의 수는 무려 370,000개가 넘으며, 모든 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다 [27].
3. 스웨덴과 핀란드는 모든 주요 도시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병커를 보유하고 있다 [27].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하다. 보도에 따르면, "LinkedIn 공동 창업자이자 저명한 투자자인 Reid Hoffman은 올해 초 뉴욕 커와의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의 50% 이상이 지하 병커와 같은 '아포칼립스 보험'을 구입했다고 추정했다... Forbes 기고가 Jim Dobson에 따르면 많은 억만장자들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오토바이, 무기, 발전기 또한 소유하고 있다" [14].

또한 Arch Mission Foundation이 운영하는 Global Knowledge Vault [1],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 [28]와 같은 인류의 중요한 자산을 멸종 수준의 재난 시에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대규모 아카이브 프로젝트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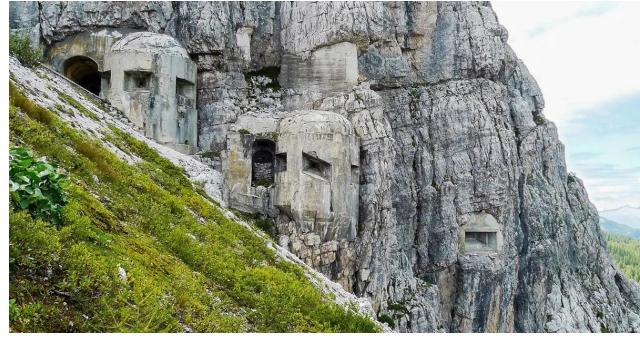


Figure 7. 남티롤, 스위스의 병커들. 유럽 알프스 산맥을 가로지르는 스위스는 산악 병커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2].



Figure 8. 노르웨이에 위치한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 100만 개가 넘는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5]. 이 저장고의 사용을 필요로 할 만한 재앙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

3. 대규모 지하기지 자금 조달 메커니즘

그렇다면 어떻게 170개 이상의 대륙횡단 지하 및 해저 기지 네트워크가 부채 노예들을 모르게 자금을 조달받고 있을까? 이러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의 규모와 출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다. 2017년, 미국의 투자 은행가이자 부시 행정부 시절 공직자를 역임한 캐서린 오스틴 피츠와 미시간 주립대 경제학자 마크 스키드모어는 미국 정부가 1998~2015 회계연도 동안 21조 달러의 승인되지 않은 지출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0, 20, 33].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7일 로이터는 스콧 팔트로우(2016)의 기사에서 2015 회계연도에 육군이 장부상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6.5조 달러의 근거 없는 회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그 해 육군 일반기금 예산이 1,220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국방부는 한참 전부터 회계 문제로 인해, 2001년 9월 10일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가 의회 청문회(C-SPAN, 2014)에서 국방부가 2.3조 달러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

US Government Revenue, Spending, and Secret Base Spending (199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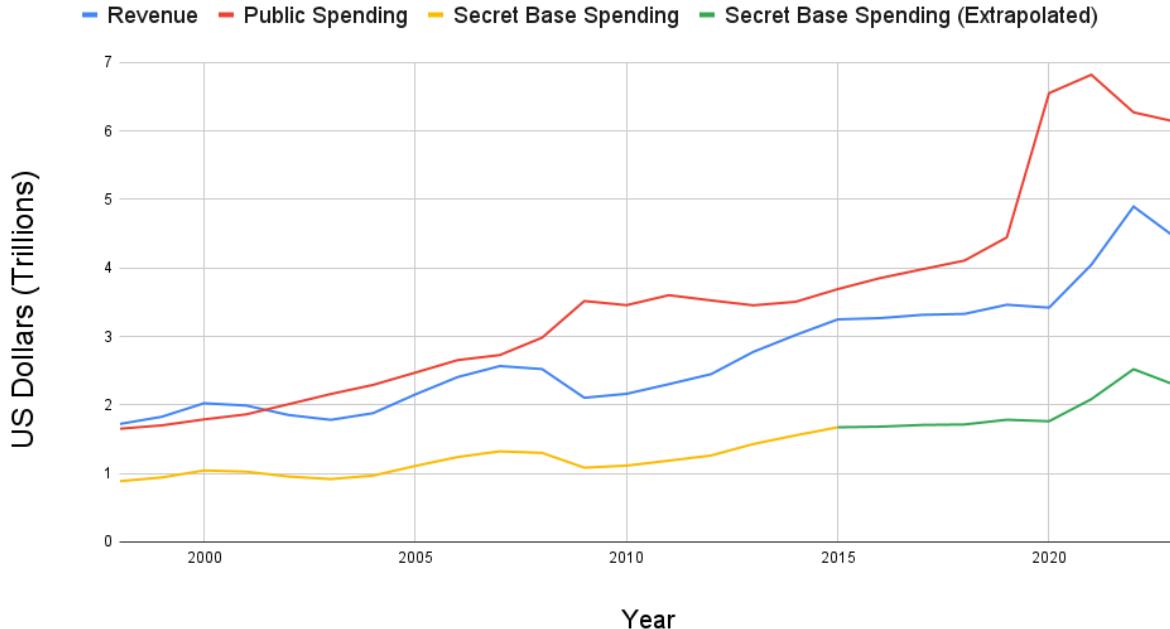


Figure 9. 1998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정부의 수입, 지출, 그리고 비밀 지하 기지 지출 [29].

건으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실은 이를 뒤 9/11 사태로 세계의 관심이 쏠리며 잊혀졌다... 마크 스키드모어 교수는 6.5조 달러의 확인 불가 육군 거래 내역 사실을 접하고 피츠에게 연락해, 2017년 봄 정부 내 HUD 및 국방부에서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확인 불가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6 개월간 스키드모어, 피츠, 그리고 소수의 대학원생들은 공식 정부 문서를 모아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21조 달러에 달하는 문서상 확인 불가 거래를 식별했다” [20].

같은 18년 동안(1998-2015) 공개적으로 인정된 미국 정부 수입은 40.8조 달러에 불과했으므로, 미국 정부 수입의 절반이 넘는 액수가 공개된 정부 지출 외에 비밀리에 지하 기지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 또한 이러한 비밀 지출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예산 적자에 염려해서 발생했으며, 1998년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지하 기지에 사용된 총 명목 금액은 21조 달러보다 훨씬 클 것이다. 같은 비율을 2016-2023년 기간에도 적용하면 1998년 이후 총 36.6조 달러가 지하 프로젝트에 쓰였으며, 아직도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2021년, 마크 스키드모어는 2017 19년 펜타곤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라 94.7조 달러 규모의 회계 조정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새로 발표했다 [19, 2]. 1913년 연방준비제도(Fed) 설립 이래 100년 넘게 중앙은행 시스템을 통한 달러 위조까지 고려하면 [34], 공식적인 달러 회계는 완전히 허구이며, 미국 화폐와 정부는 그 왕족 소유주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자원을 빼돌릴 수 있는 배분 체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4. 프로제니 오브 조브: 그림자 서구 왕들의 정체

So, 누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서구의 자본의 왕들은 자신들을 그림자 속에 숨기기 때문이다. 온갖 이론들이 있지만, 공인된 인물들부터 외계 생명체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내가 이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아말룰라”라는 가명을 사용한 익명의 블로거의 평생업적에 있다. 그의 작업은 고대와 현대 역사, 오컬트 상징, 그리고 서구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3, 7].

아말룰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서구 정치 집단을 확인했고, 이들을 모두 ”요배의 자손”이라 불렀다. 이들은 ”종말”—지구의 반복적인 대격변—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이 세 집단이 오늘날 서구 국가들을 함께 지배한다고 보았으나, 기원, 역사적 정체성, 과거의 갈등, 가치관과 행동의 차이 등으로 세 그룹으로 구분했다.

세 집단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은행가들: 고대 로마 엘리트로, 후에 기사단과 미국 북부 관할 프리메이슨이 되었다.
2. 사상가들: 로지크루시안과 남부 미국 프리메이슨.
3. 예수회와 검은 교황: 로마 가톨릭 교회 내 요배의 자손 파벌.

오늘날 이 세 집단은 함께 유럽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리고 CIA를 구성한다. 아말룰라가 설명하기를,”

지금, 종말의 시대에, 요베의 자손들은 미국 대통령 조차 접근할 수 없는 필요 사항 허가 뒤에 철저히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을 대중의 감시에서 숨기는 예술을 완성했다. 요베의 자손은 미국의 군대와 정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불환화폐의 힘, 주요 대기업, 자신들이 만든 공화정(정치인들이 쉽게 부패되고 통제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임)을 통해 서구 세계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23, 7].



Figure 10. 과연 유피테르의 후예들은 누구인가? (이미지: [36])

아밀룰라에 따르면, 이들은 종교를 경멸하고, 세계 주요 종교의 경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며, 상징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적에게는 무자비하다: ”2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종말의 특정 지식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해왔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루이드교 신자, 유대 카발라 신비가, 고대 이집트인, 아랍인, 인도 신비가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신장두개골 집단과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사제들도 포함된다. 북아메리카의 번성하던 인구를 완전히 몰살하여 이곳을 ‘종말의 땅’으로 보존했다는 증거는 실로 압도적이다. 아메리카 “인디언”的 집단 학살은 단지 마무리 작업에 불과했다” [23, 7].

아밀룰라는 또한 “미합중국” 전체 프로젝트가 로키 산맥에 위치한 화강암 산맥인 “파이크스 피크 배솔리스”를 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곳이 지구 물리학적 재앙에서 뛰어난 보호를 제공한다고 믿었다(그림 11). 아밀룰라에 따르면, ”우리가 남북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후로, 은행가들과 사상가들은 미합중국 자체의 통제보다는 파이크스 피크 배솔리스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 왔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화강암 배솔리스 중 하나다... 이처럼 해발이 매우 높고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화강암 배솔리스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각 변동에도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23, 7]. 아밀룰라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이 일대에는 광범위한 지하 터널 시스템이 건설되어 있다 [25].

5. 결론

이 논문에서 나는 서구 엘리트들이 수천 년 동안 지구의 반복적인 대재앙에 대한 지식을 신중하게 보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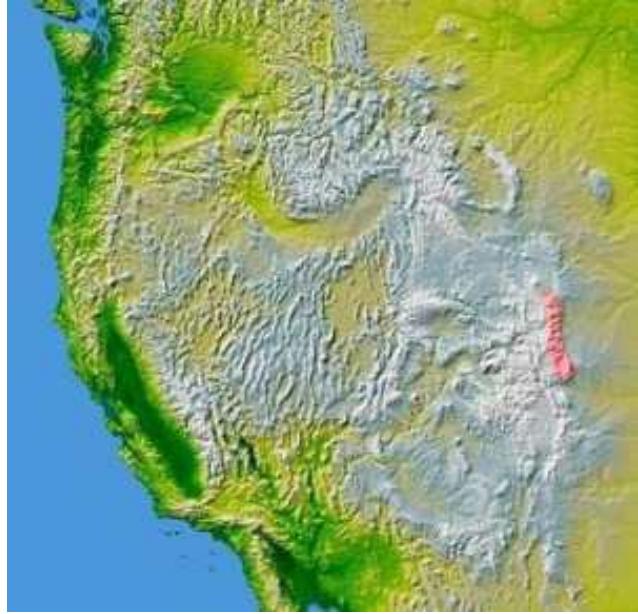


Figure 11. 붉게 강조된 유명한 파이크스 피크 배솔리스와 미국 서부 지역의 풍경 [25]. 미국이 정말로 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일까?

왔으며, 또 다른 재앙이 임박했다고 믿고, 그러한 사건에 대비해 광범위한 지하 대피소를 건설했으며, 이러한 사건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해 세계 지배를 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다양한 증언들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나는 미국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단서와,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정확한 협통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론도 언급하였다.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참고문헌을 뒤져보면 찾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많이 남아 있음을 밝힌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6. 감사의 말씀

공공 영역에 지식을 기여하기로 선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인류는 여전히 무지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영원히 꽃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빚겼으며, 나는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References

- [1] Arch Mission Foundation. “global knowledge vault”. <https://www.archmission.org/gkv>, Jan. 2024. Accessed: 2025-06-11.
- [2] A. Capaccio. Pentagon racks up \$35 trillion in accounting changes in one year. Bloomberg News, Jan. 2020. Accessed June 10, 2025.
- [3] Cryptome. “navy undersea subs”. <https://cryptome.org/2022/07/navy/navy-undersea-subs.htm>, July 2022. Accessed: June 17, 2025.
- [4] J. Dewinter. The last druid. Documentary film, 1992. A documentary on Ben McBrady, the last known member of the pre-Druid Megalithic Order, “The Old Gaelic Order.”.
- [5] J. Duggan. “norway: ‘doomsday’ vault where world’s seeds are kept safe”. Time, Apr. 2017. Accessed: 2025-06-10.
- [6] C. A. Fitts. What’s up underground? with richard dolan. Solari Report website, Mar. 2015. Accessed June 10, 2025.
- [7] Internet Archive. “archived versions of amallulla.com”. https://web.archive.org/web/20220801000000*/amallulla.com, 2025. Accessed: 2025-06-11.
- [8] Junho. Ecd0 github research repository, 2024. <https://github.com/sovrynn/ecd0>.
- [9] Junho. Junho’s website, 2025.
- [10] MSUToday, Michigan State University. Msu scholars find \$21 trillion in unauthorized government spending; defense department to conduct first-ever audit. MSU-Today, Dec. 2017. Accessed June 10, 2025.
- [11] Pinterest user (anonymous). British empire map. Pinterest (image pin), June 2025. Accessed June 10, 2025.
- [12] Project Camelot. “a letter from a norwegian politician”. <https://projectcamelot.org/norway.html>. Accessed: 2025-06-11.
- [13] E. Richards. Where is the pentagon in relation to the white house? Metro. Accessed: 2025-06-11.
- [14] M. Robinson. “billionaires are stockpiling land that could be used in the apocalypse — here’s where they’re going”. Business Insider. Accessed: 2025-06-11.
- [15] B. i. Ryan and A. (witness). “the anglo-saxon mission: Witness audio interview transcript”. Project Avalon website, Feb. 2010. Audio interview recorded January 2010; transcript published February 2010.
- [16] R. Sauder. Hidden in Plain Sight: Beyond the X-Files. Adventures Unlimited Press, Kempton, Pennsylvania.
- [17] T. E. Skeptic. <https://theethicalskeptic.com/>.
- [18] T. E. Skeptic. Master exothermic core-mantle decoupling – dzhanibekov oscillation (ecd0) theory, 2024. <https://theethicalskeptic.com/2024/05/23/master-exothermic-core-mantle-decoupling-dzhanibekov-oscillation-theory/>.
- [19] M. Skidmore. Missing money 2021 update: Addendum to missing money—june 2021. Solari Report website, June 2021. Accessed June 10, 2025.
- [20] M. Skidmore and C. A. Fitts. Should we care about secrecy in financial reporting? The Real Game of Missing Money series (Solari Report), Feb. 2019. Accessed June 10, 2025.
- [21] Solari Report. Blast from the past: Week of october 2, 2023: What’s up underground? with richard dolan. The Solari Report, Oct. 2023. Accessed June 10, 2025.
- [22] South Tyrol Blog. “south tyrol’s bunker landscape”. <https://www.south-tirol.com/blog/south-tyrols-bunker-landscape>, Oct. 2023. Published October 13, 2023; Accessed: 2025-06-11.
- [23] sovrynn. “ecd0/ 6-literature-media/ amallulla”. <https://github.com/sovrynn/ecd0/tree/master/6-LITERATURE-MEDIA/amallulla>, 2025. Accessed: 2025-06-11.
- [24] sovrynn. “ecd0/6-literature-media/project-camelot”. <https://github.com/sovrynn/ecd0/tree/master/6-LITERATURE-MEDIA/project-camelot>, 2025. Accessed: 2025-06-11.
- [25] sovrynn. “№ 58. the multi-trillion-dollar granite tunnel system in the pikes peak batholith | an apocalyptic synthesis”. https://github.com/sovrynn/ecd0/blob/master/6-LITERATURE-MEDIA/amallulla/%E2%84%96%2058.%20The%20multi-trillion-dollar%20granite%20tunnel%20system%20in%20the%20Pikes%20Peak%20batholith%20_An%20Apocalyptic%20Synthesis.html, 2025. Accessed: 2025-06-11.
- [26] Statista. Receipts of the u.s. government since fiscal year 2000. Statista, 2025. Accessed June 10, 2025.
- [27] J. J. Stevens. “why does switzerland have more nuclear bunkers than any other country?”. The Guardian. Accessed: 2025-06-11.
- [28] Svalbard Global Seed Vault. “svalbard global seed vault: Safeguarding seeds for the future”. <https://www.seedvault.no/>, 2025. Accessed: 2025-06-11.
- [29] Tax Policy Center. Federal receipt and outlay summary. Tax Policy Center website, May 2024. Accessed June 10, 2025.
- [30]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ritannica. Freemasonry. Encyclopædia Britannica, May 2025. Last updated May 19, 2025.
- [31] Unknown uploader (YouTube user). The last druid. YouTube video, Mar. 2017. Released approximately 7.3 years ago; documentary on Ben McBrady, known as the last member of the Old Gaelic Order.
- [32] s. G. user). “anglo-saxon-mission” [folder] in *ecd0 / 1-evidence / conspiracy-theories / elite-intel*. GitHub repository, 2025. Accessed June 10, 2025.
- [33] s. G. user). “catherine-fitts” folder in *ecd0 / 6-literature-media* repository. GitHub repository, June 2025. Accessed June 10, 2025.
- [34] Wikipedia contributors. Federal reserve. 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Reserve, May 2025. Last modified on May 2025.
- [35] Wikipedia contributors. “druid”.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5. Last edited June 2025; accessed June 10, 2025.

[36] M. Wilson. “the eye of providence: The symbol with a secret meaning”. BBC Culture. Accessed: 2025-06-11.